

숨은그림찾기 <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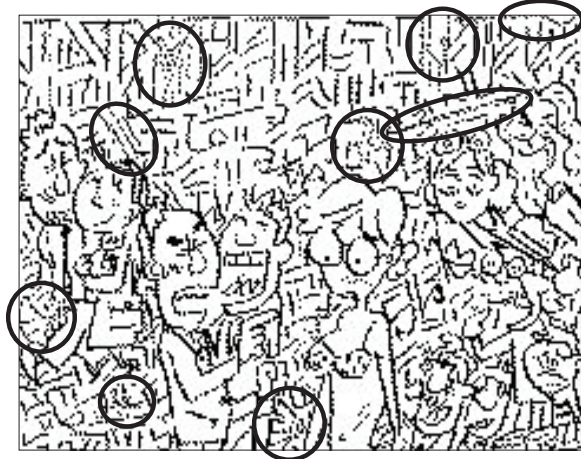


찾아보세요 화살, 사람 옆 얼굴, 슬리퍼, 부엌칼, 열대어, 음표, 새집, 바늘, 가시

어이없는 답변

Q : “강원도 산골의 의사입니다. 환자라고는 가끔 뺨에 물려서 오는 사람 정도라 발이 신통치 않고, 그나마 겨울철에는 그런 손님도 아예 없지요. 이번 겨울이 걱정되는데 무엇을 해야 할까요?”

A : “뺨을 거르세요.”



지난주 정답

송사리, 은행잎, 못, 스폰, A자, 서투룩, 바늘, 펜촉, 갈매기

그림 속에 숨겨진 사물들을 찾아보세요. 찾은 사물을 그림에 표시한 후 매주 화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 상품권(2만원)을 드립니다.
▲보내실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문매체부
▲당첨자: 김경수 <해남군 화원면 매월리> 이지훈 <순천시 저전동>

아하! 오늘이 바로 그날

1903년 12월17일 라이트 형제 세계 최초 비행 성공

1903년 12월 17일 오전 10시 35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키티호크 해안에 인류 최초의 비행기가 떠올랐다. 두 형제의 강한 집념이 만든 인류 문명의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자전거가게를 운영하던 윌버 라이트(1867~1912)와 오빌 라이트(1871~1948) 두 형제는 독일 엔지니어 릴리엔탈의 영향을 받아 항공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릴리엔탈은 글라이더를 이용해 2천 회가 넘는 비행기록을 세운 인물로 1989년 항공 역사에 관한 책을 저술하는 등 비행기 탄생에 이끈 인물이다. 그러나 릴리엔탈은 1896년 글라이더 시험 중 추락사한다.



인류 최초의 비행에 성공한 '하늘의 개척자' 라이트 형제.

릴리엔탈의 비행사고 소식을 접한 라이트 형제는 항공 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릴리엔탈의 서적을 탐구하며 비행기를 만들기 결심했다. 1899년 8월 처음으로 자그마한 글라이더를 만드는 데 성공한 라이트 형제는 1900년에는 날개 길이가 6.6미터나 되는 대형 글라이더를 만들어 하늘에 띄웠다.

글라이더 시험 비행에 성공한 라이트 형제는 이후 비행기 연구에 들어가 200회 이상의 모형 실험과 1천 회에 이르는 글라이더 시험비행을 시험한 뒤 동력비행기에 도전하게 된다. 글라이더가 스스로 하늘을 향해 떠오르지 못하는 등 이착륙이 힘들자 라이트 형제는 비행기에 엔진을 달기로 했다. 무거운 자동차 엔진 대신 알루미늄과 구리를 이용한 항공기 엔진을 제작한 형제는 풍동 시험을 통해 최초의 비행기 플라이어호를 만들었다.

오랜 시행착오를 겪으며 비행의 꿈을 키운 라이트 형제는 마침내 비상(飛翔)의 꿈을 향한 중요한 실험을 감행한다.

1903년 12월 7일 형제가 공들여 만든 플라이어호 조정석에 동승 오빌이 앉았다. 약 300kg에

이르는 비행기는 59초간 36m 상공에서 250m를 날아오르며 인류 최초의 비행 기록을 남겼다. 2번째 비행에서는 59초 동안 240m를 비행했다.

이어 1905년 10월에는 형 윌버가 플라이어 2호기를 타고 약 40분간 40km의 거리를 비행하는 하는 데 성공하면서 하늘을 날고자 했던 인류의 오랜 꿈을 실현 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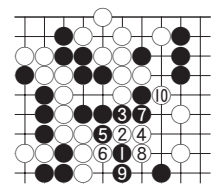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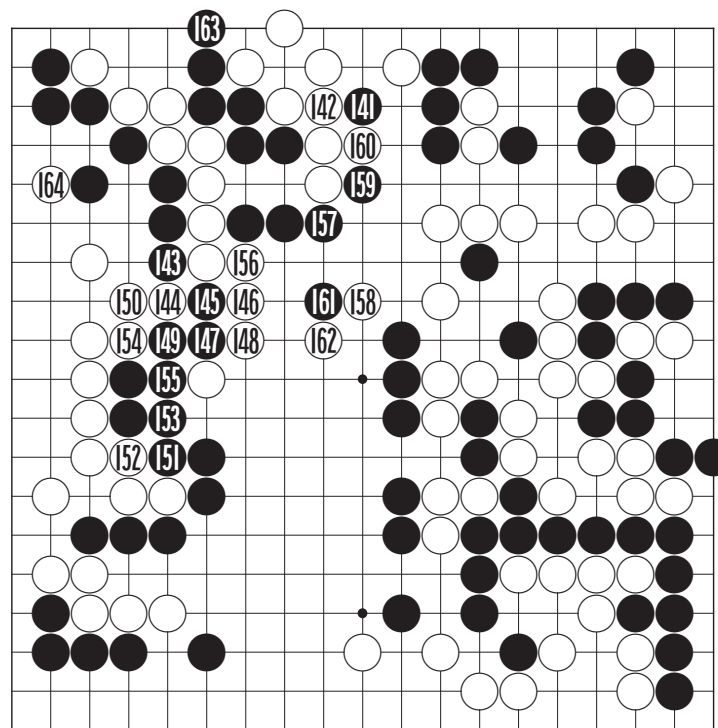
최초 비행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사진에도 관심이 많았던 라이트 형제는 자신들이 제작한 비행기와 시험 비행 장면을 사진으로 남겨두어 인류 최초의 비행기 제작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제89회 전국체전바둑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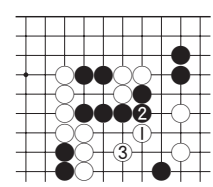
아슬아슬한 공중전

페어부 결승 8보(141~164)

白 함영우·송예슬 黑 오창석·이수빈 (전라남도) (경기도)



<참고도 1>



<참고도 2>

흑 141로 밀고 나가 아슬아슬한 공중전이 전개되고 있다. 백 144로 막은 수가 강수며 경기팀도 흑 145로 강력하게 끊어 일전불사를 의치고 있다.

전남팀은 백 146부터 154까지를 시원하

게 선수한 다음 156으로 잇는다. 이때 흑으로는 '참고도 1'의 흑 1에 두어 강력하게 공격을 퍼붓고 싶으나 그러면 백 2로 불이게 된다. 이하 10가지면 거꾸로 흑이 잡히게 된다.

전남팀이 기본종계 158로 뛰었는데 이 수가 기본에 치우친 수로 '참고도 2'의 백 1로 두고 3으로 깨끗하게 연결해야 했다. 흑 161로 불임을 당해 뒷맛이 나빠지고 있다. 백 164가 맥점이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대한주변중사광주전남지역본부

EL DORADO 엘도라도리조트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17일(음 11월 20일 辛卯)

Table of daily horoscopes for December 17th, 2008, listing zodiac signs and their corresponding fortunes.

Advertisement for Derma-Plast skin care products, featuring a woman's face and contact information.

굿모닝 잉글리쉬 <1212>

Is 10 o'clock too early? 10시면 너무 빠른가요?

A: I guess I'll see you tomorrow. B: When are you going to come over? A: Is 10:00 too early? B: No, that's great.

A: 내일 만나야겠어. B: 언제 도착할 거니? A: 10시면 너무 빠르니? B: 아니, 좋아.

* I guess~ =I think~ * come over : 도착하다

* 언제 운동을 할 건데? = When are you going to get some exercise?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오우 니혼고 <1212>

本當にイケメンですよ。 꽃미남이시네요

A: 木村さんは本當にイケメンですよ. B: ええ、そうですね。そんな男性は珍(めづ)らしいですよ. A: 私(わたし)は? B: ---

A: 기무라 상은 정말로 꽃미남이네요. B: 네~ 그래요. 그런 남성이 흔치않아요. A: 저는요? B: ---

우리나라에서 잘 생긴 사람을 일컬을 때 꽃미남이라는 표현을 쓰지요? 일본에서도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男性(だんせい): 남성 珍(めづ)らしい: 귀하다, 희귀하다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니하오 쑹구워 <289>

生日是几月几号? 생일이 몇 월 몇 일이에요?

A: 哥哥你的生日是几月几号? Cǎo ni de shēng rì shì jǐ yuè jǐ hào? 개가 너의 생일 언제 생겼어?

B: 我的生日是四月二十三日。 Wǒ de shēng rì shì sì yuè èrshí sān hào. 뭐 더 생일 언제 생겼어?

A: 姐姐你的生日是几月几号? Jǐjiě nǐ de shēng rì shì jǐ yuè jǐ hào? 자매지네 생일 언제 생겼어?

B: 我的生日是二月十号。 Wǒ de shēng rì shì èr yuè shí hào. 뭐 더 생일 언제 생겼어?

A: 생일 언제 생겼어 언제 생겼어? B: 내 생일은 4월 23일이야. A: 누나! 생일이 몇 월 몇 일이에요? B: 내 생일은 2월 13일이야.

生日 [shēng rì] 생일 月 [yuè] 월 号 [hào] 일

<광주중국어학원(상무지구 금호대우A 앞)> ☎ 383-1605

한자 이야기 <929>

凍氷可折(동빙가절) 얼 등, 얼음 빙, 가히 가, 꺾을 절

동빙가절(凍氷可折)은 얼음을 쉽게 부러진다는 말로, 흐르는 물도 겨울철 얼음이 되면 쉽게 부러진다는 뜻이다. 사람의 강하고 부드러운 성격도 때에 따라 달라짐을 비유한다. 사림의 매서운 기상도 나이를 들게 되면 부드럽게 변화함을 나타내는 말로, '동빙가절(冬氷可折)'이라고도 한다.

'절(折)'은 본래 손에 도끼(斤)를 잡고 나무(木)를 잘라 동강내는 모습을 나타낸 글자이다. 그런데 도끼를 한번으로 나무를 꺾을 수 없으므로 천천히 여러 번 한다는 의미에서 천천히 하다는 뜻도 나왔다.

'절(折)'이 들어간 말 중에서 '절충(折衝)'과 '절충(折衷)'은 동음이의(同音異義)로 주의를 요한다. 충(衝)은 '찌르다'이고, 나가 '창'이라는 뜻이므로, 절충(折衝)은 적의 창끝을 꺾고 막듯이 짧은 시절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상대방과 교섭이나 흥정을 잘하는 것이다. 한편 충(衷)은 '속마음'이므로, 내 속마음을 꺾어서 상대방이나 자신의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게 취사선택하는 것으로, '절충(折中)'이라고도 한다. 절충(折衝)의 기술이란, 우선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절충(折衷)에서 연유된다고도 할 수 있다.

<한예원(韓睿媛)>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7353